

# 평창의 밤, 승부를 잊고 세계를 잇다

## ‘17일간의 열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선수·관중·자원봉사자 등 한데 어울려

‘미래의 물결’ 주제 공연·K팝 등 즐겨

2022년 올림픽 개최지 중 베이징 공연도

17일 동안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싸운 겨울스포츠 제전의 끝은 춤이고, 노래고, 축제였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에서 열린 올림픽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92개국 2천900여 명의 선수들과 900여 명의 출연진, 3만5천 명의 관람객들은 한 순간 경장도, 승부도, 동과 서, 남과 북, 반목과 갈등, 분쟁을 모두 잊은 채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로 어울려졌다.

한겨울 밤 은빛 설원의 대관령 골짜기에 모인 각종 사람들을 하나로 이은 것은 다름 아닌 춤과 음악, K팝이었다.

25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은 조화와 융합을 통한 공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한국적인 색채와 혁신적인 현대 예술을 결합해 주조했다.

짜임새 있는 공연이 그려낸 폐회식의 주제는 ‘미래의 물결(The Next Wave)’. 낡은 틀을 깨뜨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을 뜻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산업 혁명이 만드는 희망찬 미래, 그 미래를 앞장서 이끌겠다는 우리의 포부도 담겼다.

공연은 올림픽스타디움의 원형 무대 위에서 강릉 아이스아레나,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정선 알파인 등 열전을 치렀던 경기장을 표현하는 숫자들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됐다.

인라인스케이팅을 타고 등장한 사람들이 빙상과 설상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형상화한다. 어느새 커다란 오륜을 완성해내자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입장하고, 대관령 아이들 23명이 들고는 태극기가 내걸리자, 소리꾼 장사익과 아이들이 합창하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선수 입장. 92개 참가국 깃발이 한꺼번에 등장해 무대 중앙에 늘어선 국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장해 자리를 잡을 때 신나는 창작 판소리가 흥을 돋우고, 무대를 동그랗게 둘러싼 도우미(자원봉사자)들이 흥겨운 울동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서 올림픽스타디움 위 하늘에선

‘라이브 드론쇼’가 펼쳐졌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수호랑과 하트를 수놓자 관람석에선 환호성이 울렸다.

남녀 크로스컨트리 스키 시상식에 이어 다시 월형무대를 캔버스 삼아 질세 없이 화려한 빛그림을 그려대는 강렬한 미디어아트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듯한 대무용이 결합된 전위적 공연이 이어졌다.

K팝 공연의 첫 테이프는 걸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출신인 가수 씨엘이 끊었다. 씨엘은 햇살을 든 20명의 댄서와 함께 도발적인 솔로 데뷔곡 ‘나쁜 기집’으로 무대를 연 뒤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로 열심히 싸운 선수들을 복돋웠다.

올림픽기를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으로 전달하는 행사에 이어 기대를 모았던 거장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한 8분간의 공연이 펼쳐졌다.

“수고했어요 평창”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한국어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선수들과 함께 손가락 하트를 날리기도 했다.

뒤이어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 타악기 풍과리와 전자 드럼의 비트에 따라 엑소 멤버 카이의 독무가 시작되고, 사륜 자동차를 타고 무대 가운데 등장한 8명의 엑소 멤버들이 히트곡 ‘으르렁’을 선보였고 ‘파워’를 이어 부를 때 하늘에서 불꽃 소가 펼쳐졌다.

폐회식의 주인공인 강원도의 다섯 아이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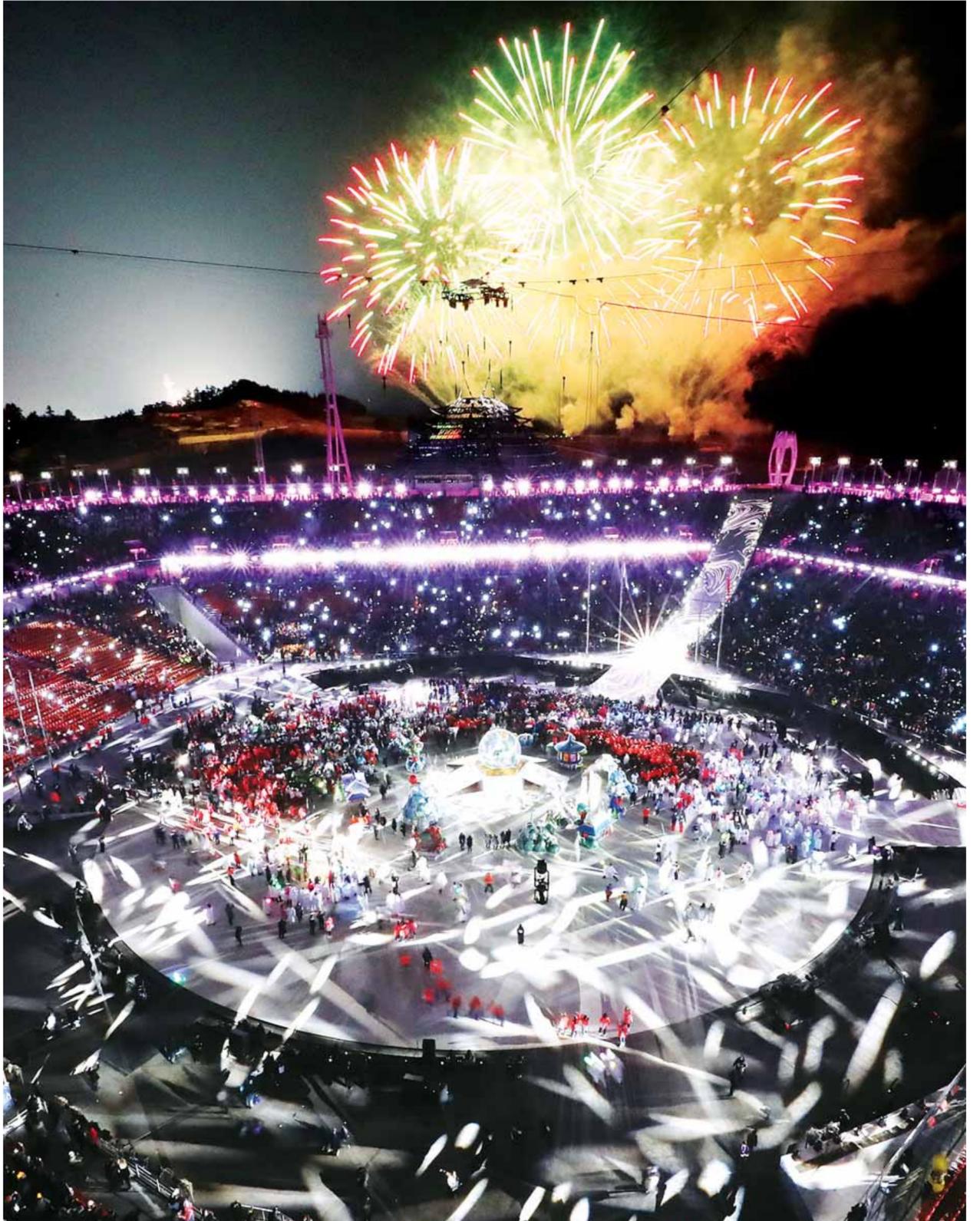
아이들은 초대형 선물 상자를 이끄는 스노모빌과 열 마리의 수호랑과 함께 등장해 평창에서 펼쳐진 17일의 여정이 담긴 추억을 선물했다. 울고 웃던 추억을 뒤로 한 채 성하의 불은 사그라들었다.

폐회식의 피날레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흥겨운 축제로 장식됐다.

오각의 올림픽스타디움 가득 채운 음악과 3만5천개 좌석마다 설치된 LED등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조명은 거대한 클럽을 방불케 했다.

그렇게 17일간의 축제는 막을 내렸다. “2022년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요.”

/연합뉴스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평창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오른쪽 네번째) IOC 위원장이 선수들을 대표해 한국의 윤성빈(오른쪽 세번째), 북한의 려대욱, 미국의 린지 본 등과 함께 손으로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바흐 위원장, 5대륙 대표 선수들과 손하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준비한 폐회식 ‘희심의 카드’가 적중했다.

5개 대륙의 상징성을 가진 선수와 함께 한 인사는 2018 평창올림픽을 더 뜻깊게 만들었다.

바흐 위원장은 25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한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한국말도 섞여, 관중들의 박수도 받았다.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을 빛낸 선수”라며 기파 타우파토포(통가), 류지위(중국), 린지 본(미국), 려대욱(북한), 윤성빈(한국), 아디군 세운(나이지리아), 고다이라 나오(스위스스케이팅), 마르탱 푸르카드(프랑스)를 호명했고, 이들이 바흐 위원장 근처로 왔다. 오세아니아(통가), 아메리카(미국), 유럽(프랑스), 아프리카(나이지리아)를 대표할만한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왔다. 아시아 선수들은 더 많았다. 중국과 일

본에서 한 명씩, 그리고 북한과 한국에서 한 명씩을 불렀다.

개최국이 한국이라는 점, 차기 대회가 중국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듯하다. 이후 바흐의 행동도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바흐는 한국 윤성빈과 북한 려대욱 사 이로 걸어왔고 ‘손 하트’를 그려 보이며 평창과 작별 인사를 했다.

평창올림픽의 메인 테마가 ‘화합’이었음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바흐 위원장은 이 장면을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성빈을 만난 자리에서 “폐회식 때 5개 대륙 대표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계획인데 참여하겠나”라고 묻는 등, 자신이 직접은 ‘상징적인 선수’를 섭외에 나섰다.

바흐 위원장의 기획력과 추진력에, 평창 올림픽 폐회식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합뉴스

## 남북, 폐회식때 왜 따로 입장했을까 “윤성빈 압도적 기량 선보여”

IOC ‘국기 모두 입장’ 규정에 각각 태극기·인공기 들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공동 입장했던 남북한이 폐회식에서는 각각 기수를 내세워 단복도 따로 입고 입장했다.

남북 선수단은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개회식 때와 달리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했다.

지난 9일 개회식에서는 원운종과 황충금 ‘남남북녀’ 공동 기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가운데 남북한이 같은 단복을 입고 11년 만에 공동 입장에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폐회식에선 이송훈이 태극기를 들고, 북측 김주식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다.

선수단 입장도 마지막 순서에 북한 선수단이 먼저 입장하고 곧바로 한국선수단이 들어왔지만 공동 입장은 아니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국기가 모두 입장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美 NBC 종목별 선수 선정 클로이 김·자기토포 등도

한국 쉼메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윤성빈(24)이 2018평창동계 올림픽 각 종목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량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에 선정됐다.

미국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는 26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에서 종목별로 가장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선수를 한 명씩 지목했다.

NBC는 스킨레이팅 종목에서 가장 탁월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로 남자부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을 지목하며 “개최국 선수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아이언맨’ 헬멧을 쓴 윤성빈은 네 차례 주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1.63초 차로 정상에 올랐다. 이는 올림픽 스킨레이팅 사상 가장 큰 격차”라고 평가했다.

윤성빈은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스켈레톤 황제’로 불렸던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4위로 밀어내며 당분간 세계 스킨레이팅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예고했다. 재미동포 클로이 김(18)은 스노보드 종목에서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이번 대회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한 클로이 김에 대해 NBC는 “예선 1, 2차 시기와 결선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며 “클로이 김 우승에 결정적이었던 ‘백투백 1080’ 기술은 다른 선수가 해본 적이 없는 난도”라고 칭찬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데뷔전을 치렀고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점프와 회전으로 전 세계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챔피언 알리나 자기토포(OAR·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는 2002년생으로 1998년 나가노 대회 타라 리핀스키(당시 15세 255일·미국)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특히 같은 OAR의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며 명승부를 연출, 세계 피겨 팬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했다.

/연합뉴스